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8월호〉

다가오는 환절기의 가축질병 어떻게 관리할까요?

정영훈 낙농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큰 일교차는 가축면역력 약화를 부른다

낮과 밤의 일교차 약 10°C 전후의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가축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사불균형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 가축에게 환경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바깥의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야간에는 축사보온, 낮에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사료공급은 물론 비타민, 광물질 등의 첨가제를 적절히 배합해 급여하고 호흡기 질병 및 설사병 등의 백신을 적기에 접종해 면역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 질병예방

- ◆ 급작스런 사양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에 의한 항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수립
 - 분만 후 신속하고 충분한 초유급여 및 보온, 깨끗한 환경 등의 위생관리 철저
 - 심한 일교차에 대비한 방풍 및 우군의 보온관리

- ◆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소 바이러스 설사병, 소 합포체성 폐렴, 파라인플루엔자, 전염성비기관염, 수송열 및 송아지설사병 등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 외부로부터 소를 구입 시 건강 유무 확인 및 2주간 격리 수용하고 입식당일에는 따뜻한 물, 양질 조사료 급여, 농후사료는 다음날부터 서서히 양을 증가시켜 급여

- ◆ 봄·가을 정기 구충 및 신규 입시하는 소, 방목 전·후 구충 실시
- ◆ 갑작스런 외부환경변화와 체력저하에 따른 유방염 발생 예방대책 수립
 - 위생적인 착유 관리준수와 종창된 유방은 소염제 투여나 마사지 실시
 - 유방염에 걸린 개체는 감수성이 높은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 실시
- ◆ 분만 전·후 유열, 케토시스, 4위 전위 등의 대사성 질환 및 체중, 유량감소를 일으키는 만성소모성 질병예방 철저 및 전문수의사의 건강검진 실시
- ◆ 시료보관은 직사광선과 습기를 차단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변패된 사료나 담근먹이(사일레지) 급여방지

돼지의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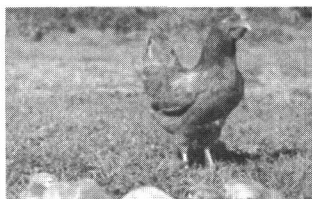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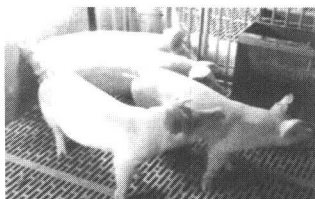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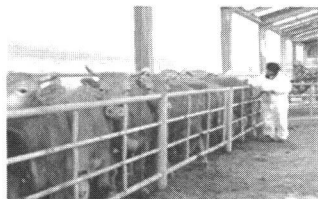
- ◆ 가을철이 되면 아침·저녁의 싸늘한 기온과 한낮의 높은 온도로 인한 심한 기온차이에 의해 소화기, 호흡기 질병, 각종 번식과 성장의 저해요인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후변화 각별히 주의
- ◆ 돼지사양 및 위생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영양, 질병에 대한 사전 사양관리 철저로 건강증진 및 번식과 증체유도
 - 밀사방지 및 환기개선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
 - 축사소독 철저로 상재 병원균 감소 및 질병전파 방지

- 적정 영양소 수준 점검, 사료 변패 방지 및 백신접종

- ◆ 환절기인 가을철은 자돈을 많이 분만하는 계절이므로 환경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생 자돈의 보온과 환기에 특별한 관리 필요
- ◆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돼지를 체력을 회복시켜 번식률을 향상시키고 육성기 돼지는 환경 개선으로 사료효율을 높이는 등 각기 사육목적에 맞도록 사양관리 및 서서히 다가오는 겨울철 혹한을 대비 월동준비 철저

닭의 위생관리

- ◆ 질병예방을 위한 일령별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백신접종관리 필요
- ◆ 철저한 계사 주변의 차단방역과 소독관리 선행
- ◆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서는 환절기 온도, 환기관리 및 방역위생관리 철저
- ◆ 환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면역능력의 저하가 일어나고 계사내의 온도 유지를 위하여 밀폐된 상태에서 닭을 사육하는 상태에서는 계사내의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 유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와 배설물이나 먼지를 매체로 날아다니는 각종 병균과 일반 세균 등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쾌적하고 깨끗한 사육환경 유지 필수^㉔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9월호)